

고유가 대응 'K-패스' 교통비 지원 확대

전주시, 최대 83.3% 환급... 기본형 시차 출퇴근 추가 환급 도입·정액형 반값패스 방식으로 혜택 확대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이른바 '기름값 2000원 시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중교통비 환급 사업인 'K-패스'의 환급 혜택이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전주시는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커진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기 위해 K-패스 이용 혜택을 확대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환급률은 높이고 환급 기준금액은 낮춰 시민들이 더 적은 부담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 핵심이다.

먼저 기본형(정률형)은 일반 시간대에는 기존 환급률이 그대로 적용되고, 시차 출퇴근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 환급률이 기존보다 30% 포인트 상향된다.

이에 따라 시차 출퇴근 시간대 기준

환급률은 일반 50%, 청년·2차녀·노인 60%, 3차녀 80%, 저소득층은 최대 83.3%까지 확대된다.

시차 출퇴근 추가 환급 적용 시간은 오전 5시30분부터 6시30분, 오전 9시부터 10시, 오후 4시부터 5시, 오후 7시부터 8시까지다.

이와 함께 정액형 상품인 '모두의 카드' 환급 기준 금액도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일반은 기존 5만5000원에서 2만7000원으로, 청년·2차녀·노인은 5만 원에서 2만3000원으로, 3차녀·저소득층은 4만 원에서 2만 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모두의 카드'는 한 달 교통비 지출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환급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청년이 한 달 대중교통비로 5만 원을 지출한

경우, 기존 금액인 2만3000원만 부담하고 초과한 2만7000원은 환급받게 된다.

이번 확대 적용 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9월 이용분까지 6개월간이며, 4월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용 방법은 종전과 동일하다. 만 19세 이상 전주시민이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 유형에 따라 다음 달에 일정 비율 또는 초과 사용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K-패스 카드를 아직 발급받지 않은 시민은 가까운 은행 등 참여 금융기관에서 카드를 발급받은 뒤, K-패스 앱을 통해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카드를 등록하면 된다.

시는 이번 K-패스 개편이 단순한 환급 지원을 넘어 고유가 상황에서 시민

의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고, 더 적은 비용으로 대중교통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 체감형 교통복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자가용 이용 수요의 대중교통 전환을 유도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김용삼 전주시 대중교통국장장은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보다 많은 시민이 K-패스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환급 지원을 확대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모미는 지난 17일 전주시복지재단에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능성 '산소베개' 100개(1200만 원 상당)를 기부했다.

시설 아동들에게 '꿀잠' 선물

모미, 전주시복지재단에 '산소베개' 100개 기부

전주시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들이 건강한 수면 환경 속에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 전달됐다.

모미(대표 이초희)는 지난 17일 전주시복지재단(이사장 윤방삼)에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능성 '산소베개' 100개(1200만 원 상당)를 기부했다.

이날 기부된 '산소베개'는 모미(MOMI)의 대표 제품으로, 신체 성장이 급격히 이뤄지는 아이들의 숙면을 돕고 올바른 체형을 유지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단은 기부받은 물품을 전주시역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20곳에서 생활하는 아동·청소년 100명에게 신속히 전달할 예정이다.

이초희 모미(MOMI) 대표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밤마다 편안하게 잠들고, 밝은 미래를 꿈꾸며 건강하게 자라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를 결정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에 꾸준히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권희성 기자

초록빛 공원에서 즐기는 '특별한 책 나들이'

전주시, 25일·5월 2일 '야외 팝업 그린도서관' 운영

책의 도시 전주시가 봄철을 맞아 시민들이 초록빛 공원에서 책과 함께 독서와 휴식을 보낼 수 있도록 특별한 야외도서관을 마련키로 했다.

시는 오는 25일과 5월 2일, 각각 덕진공원과 노송광장에서 파스한 봄을 맞아 시민들이 정형화된 도서관 공간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휴식과 독서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야외 팝업 그린도서관을 운영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심 속 공원에 개방형 독서 공간을 조성해 시민들이 자연 속 야외도서관에서 차별화된 독서콘텐츠를 즐기도록 만들고, 일상 속 독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구체적으로 그린도서관은 오는 25일에는 전주의 대표 관광명소인 덕진공원에서, 오는 5월 2일에는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만날 수 있다.

빈백·캠핑의자·인디언 텐트 등이 마련된 야외 독서 공간에서는 한국출

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기증받은 100여 권의 도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그린도서관에는 독서의 즐거움을 더할 재미난 체험과 독서 물품도 준비된다.

세부적으로 △전주 올해의 책 선정 도서 필사 체험 등 아날로그 글쓰기 공간 △블렌·책갈피 만들기 등 DIY 체험 공간 △책 읽는 모습을 남길 수 있는 플로로이드 사진 찍기 이벤트가 상시로 운영된다. 또, 비눗방울과 보드 게임 등 독서 중 잠시 기지개를 켤 수

/권희성 기자

있는 틈새 놀이터도 즐길 수 있으며, 우선독서대와 돗자리, 모래시계, 양산 등 쾌적한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한 '집중 독서 굿즈'도 대여한다.

이와 함께 특별 이벤트로 마련된 버스킹 공연은 행사 당일 공원을 찾은 시민들에게 독서와 어울린 현장의 분위기를 더욱 운치 있게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두 번째 야외도서관이 펼쳐지는 노송광장에서는 손준수 시인이 즉석에서 타자기로 시를 써주는 '시 쓰는 타자기' 프로그램이 예정돼 있어, 봄철을 맞아 그린도서관을 찾는 시민들에게 아날로그 감성이 가득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인명피해 우려 지역 2개소 안전 점검 나서

시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전주시가 안전사고 발생 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취약 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 및 선제적인 현장 안전 관리에 나섰다.

시는 지난 17일 운동목 전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민관 합동 점검반이 '건원로 급경사지 비탈면 정비사업 현장'과 '진기울 유수지'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을 찾아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에서 점검반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산사태에 대비해 시설물의 안전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비상시 신속한 주민 대피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시는 이날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61일간 관내 안전취약계층·민생중심시설·노후 및 고위험 시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2026년 집중안전점검'을 추진한다.

특히, 시는 이번 집중안전점검 기간 중 시민이 직접 점검을 신청할 수 있는 '주민점검신청제'를 운영해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점검 신청은 오는 6월 1일까지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접수된 시설 중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이번 점검 기간 내 전문가의 합동 점검을 받게 된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전주시민기록관 현장 점검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위원장 최용철)는 지난 17일 전주시민기록관을 방문해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최용철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전주시민기록관을 찾아 운영 현황과 주요 사업 등을 보고받고, 기록 문화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1층 전시실과 주차장의 액자 전시 공간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실감 미디어실, 보존서고 등을 둘러보고 시설의 관리 상태를 확인했다.

최용철 위원장은 "시민들이 기증한 기록물은 전주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소중한 미래 자산"이라며 "시민기록관

/권희성 기자



이 전주의 기억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새로운 기록 문화를 창출하는 거점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효자어울림복합복지관 건립 착착

전주시, 복권기금 신청사업 7억3100만원 확보... 5월 준공 목표

전주시는 서부권 주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해 교육과 돌봄, 문화, 여가 공간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전주효자어울림복합복지관 건립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효자어울림복합복지관은 효자동2가 1240-3번지 일대 부지면적 3799㎡에 연면적 7183㎡,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된다.

복지관 내부에는 △지하 2층 주차장 △지하1층 경로식당·북카페·주차장 △지상 1~2층 노인복지관 △3층 시니어클럽 △4~5층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을 갖추게 된다.

특히 시는 효자어울림복합복지관의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문화적·경제적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2026년 복권기금 신청사업 7억 3100만원을 확보했다.

시는 이렇게 확보된 복권기금을 투입해 효자어울림복합복지관의 외·내부 인테리어 등 마감공사 및 조경 등 부대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권희성 기자



복합복지관 건립은 오는 5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개관 이후에는 효자4동과 효자5동, 혁신도시 등 서부권에 거주하는 여러 세대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는 복합복지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올해 준공을 목표로 복합복지관 인근(효자동2가 1240-7번지)에 전주효자어울림공영주차장을 주차타워로 건설해 총 191면의 주차 면수를 확보할 예정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마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지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